"불국사 극락전 미타신앙 수용"

김홍식 교수, 전통예술학회 세미나서 주장



대표적 화엄계 사찰로 알려진 영주 부석사는 무량수전 북동쪽 뒤로 조사당이 들어서 있다. 선종 사찰에서나 볼 수 있는 이러한 가람 배치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반면 독같은 화엄계 사찰인 구례 화엄사는 화엄계 사찰의 특징인 금당 중심의 일탑식 가람배치를 따르면서도 부석사와는 달리 삼층탑 대신 오층탑을 조성해 놓고 있다.

이와 같이 같은 불교 사상을 바탕으로 절을 지었는데도 서로 다른 점이 있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국전통예술학회(회장 홍윤식) 주최로 10일 동국대 덕암 세미나실에서 '전통 건조물 속에 스며 있는 미학의 세계 재조명'을 주제로 열린 한중일 국제학술회의는 전통 건축 양식의 주축을 이루는 사찰 건축이 신앙형태의 변화에 따라 그 양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한 이해의 틀을 마련해 준다.

'한국 불교 도입기(4~8세기) 불교 사상 변화에 따른 사찰 건축의 배치 계획에 대한 연구'를 발표한 김홍식(명지대 · 사진) 교수는 "건축물이란 짓고자 하는 사람의 정신을 담은 그릇이며 건축물에는 그 시대의 정신이 담겨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유가계통의 사찰이면서도 감은사와 불국사의 모습이 다른 것은 시대적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원리원칙을 중시한 유가계 사찰의 특징은 절을 산기슭에 비치해 절 앞에 높은 단을 쌓고 그 앞에 연못을 파 피안으로 건너가게 계획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불국사는 절이 완성되기 전 의상계 화엄사찰로 변하면서 남쪽 회랑 앞의 연못을 없앴고, 당시의 민중불교적 미타신앙을 수용해 서쪽 한 단 낮은 곳에 극락전을 배치하게 된 것이다.

화엄계 사찰인 영주 부석사와 구례 화엄사의 가람 배치에서도 이 같은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불법승 3보 가운데 승(僧)을 중시한 화엄계 사찰은 사람 중심의 공간 배치를 좇아 강당을 크게 지을 뿐 아니라 높은 석축 위에 자리하는 게 특징이다. 부석사 무량수전 앞 석축이나 화엄사 각황전 앞의 석축은 바로 이를 보여준다. 부석사 무량수전의 아미타불이나 화엄사 각황전의 불상 배치에서 볼 수 있듯, 건물 내부도 부처님을 북판에 모셔서 부처님을 들면서 의식을 거행한다든지 한쪽 모서리에 모셔서 대중이 모이기 편리하게 꾸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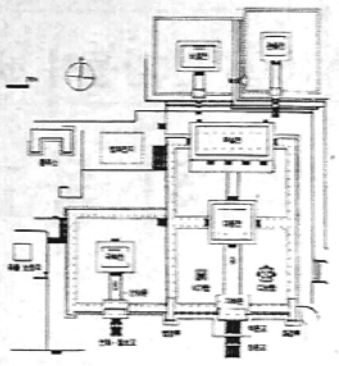
그러나 의상계 화엄을 따른 부석사는 화엄교학의 주불인 비로자나불뿐 아니라 관세음보살과 아미타불을 등시에 모셨으며, 금당이 아닌 강당에서도 설법을 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부처를 모셔두기도 했다. 이 때는 전각의 주체는 부처가 아니므로 한쪽으로 모셔놓은 것이며, 집안의 주체는 승려이기 때문에 이들을 왼쪽에 두기 위해 오른쪽에 조성한 것이다.

부석사와는 달리 백제계 삼론을 받아들이면서 출발한 화엄사는 수직을 강조하는 오층탑을 조성했으며, 이후 초기 조사선, 고려말 임제선,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오늘날과 같은 가람 배치를 완성했다.

김 교수는 "건축물은 당시의 철학을 반영한다. 절을 짓고자 하는 사람 역시 자신이 신봉하는 불교 사상을 그 안에 담아 내려고 하기 마련이다"며 "불교 사상이 시대에 따라 변하면서 가람 배치 역시 이에 상응하는 형식을 띠게 된다"고 말했다. 한 사찰 안에 여러 종파의 가람 배치 형식이 섞여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날 기조강연을 한 김동현(동국대) 교수는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는 아직도 무속신앙이 존재하고 가정과 사회에서는 유교적인 충효의 근본이 살아있다"며 "불교사원에서마저 무속적인 것과 유교적, 도교적인 함께 존재하는데, 이는 한국 불교사원의 이해를 오직 불교적인 면에서만 조망하고 해석하려는 도식이 많은 부분 수정돼야 함을 뜻한다"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불국사 가람 배치도.

"삼국유사 집필 장소는 운문사"

조춘호 교수 '인각사 통설' 뒤집어

〈삼국유사〉는 일연 스님이 인각사에 주석하면서 쓴 것이 아니라 운문사 주석시절인 1277년에서 1282년 사이에 찬술한 것이라는, 기존 통설을 뒤엎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불교어문학회(회장 오출세) 주최로 10일 경주 기림사에서 열린 학술발표회에서 '일연 스님의 생애와 〈삼국유사〉' 주제발표를 한 조춘호 교수(경산대)는 이 같이 주장하며 일연 스님의 생애와 활동에 대해 새로운 견해를 제시했다.

일연 스님의 생애에 대한 기록 가운데 은전하게 남아 있는 것은 〈고려국 화산 조계종 인각사 가지산하 보각국존 비명병서〉와 〈고려 인각사 보각국사 비음기〉가 전부. 하지만 〈삼국유사〉를 저술한 일에 대한 행적은 비문에 나타나 있지 않다. 조 교수가 〈삼국유사〉 편찬과정을 짐작할 수 있는 기록으로 주목한 것은 〈삼국유사〉 중 스님의 제자 무극 혼구스님이 기술한 〈전후소장사리〉조다. 등고 침입으로 1235년 강화도로 천도 당시 불아(佛牙)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게 된 과정을 밝힌 이 글에는 "각유 스님이 이러한 사정을 기록하게 하여 적게 되었으며 1284년에 국정사 금람에 이를 봉안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조 교수는 "1284년은 인각사를 하안소로 정해 옮겨 간 해이므로 삼국유사는 일연 스님이 인각사에 오기 전 운문사 주석시절인 1277년부터 1284년 사이에 찬술한 것으로 짐작된다"고 주장했다. 권형진 기자

"월인석보 팔상도 도상 중국과 다른 독자적 양식"

박도화 씨 갑사 학술대회서 주장

월인석보 팔상도 판화를 미술사학적 관점에서 다룬 논문이 발표돼 관심을 모은다.

3일 충남 공주 계룡사 갑사(주지 장곡)에서 열린 갑사 개산대제 기념 학술대회 '〈월인석보〉의 문화사적 조명'에서 박도화(동국대 강사) 씨는 '월인석보 팔상도 판화의 도상 특징과 미술사적 의의'를 발표했다.

박 씨는 주제발표에서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팔상도인 월인석보 팔상도의 도상은 우리 나라 독자적인 양식"이라고 밝혔다. 중국 명대 불전벽화들을 검토한 박 씨에 따르면, 월인석보 팔상도 판화뿐 아니라 국내 전하는 팔상도는 8폭으로 형식이 고정돼 있는 데 비해 중국 명대의 불전도는 84폭, 209폭 등 형식이 일정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박 씨는 이어 "국내에 전하는 18세기 이후의 팔상도에도 월인석보 팔상도 판화의 제목과 기본 도상이 계승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월인석보 팔상도 판화는 그 도상이 조선후기 팔상도로 계승된다는 점에서 우리 나라 팔상도 도상의 연원이 되는 작품"이라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건봉사 능파교 · 고성 홍교 '보물 예고'

문화재청(청장 노태섭)은 6일 '건봉사 능파교'와 '고성 옥송정 홍교'를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모두 홍예교(아치형 다리)로 조선시대 석조 다리의 조형미를 잘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능파교'는 1704~1707년(숙종 30~33) 무렵 건봉사 불이문(문화재자료 제35호) 입구에 세워졌으며 길이 14.3m, 너비 3m, 중앙부 높이는 5.4m이다. 특히 불이문 옆의 '능파교신창기비(凌波橋新創記碑)'에 축조연대와 건립자 등의 기록이 남아있어 홍예교 연구에 중요한 자료다.

'옥송정 홍교'는 고성군 간성읍 해상리와 탑현리 경계에 있는 다리로 '능파교'와 비슷한 시기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보존을 위해 다리 윗면에 목교(木橋, 폭 3m)가 가설돼 있다.

이들 문화재는 30일간의 지정 예고 기간이 지나면 12월 초 문화재위원회를 심의를 거쳐 보물로 지정될 예정이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최근 보물로 지정 예고된 강원 고성 건봉사 능파교.

단박 깨침 '일상서 해탈'



중국 돈오선사상의 이해를 통해 돈(頓)과 점(漸), 오(悟)와 수(修)의 선사상사적 개념을 정립, 돈점논쟁에서 제기된 여러 수증론(修證論)의 대립을 지양하고 각각의 본래 의의를 살려 수증일여(修證一如), 돈점장입(頓漸雙入)의 회통적 수증론을 도출한 논문이 발표됐다. 월암(사진)스님은 최근 중국 북경대 철학과에서 취득한 박사학위 논문 '돈오선 연구'에서 돈점장입의 실천정신을 조명해 선의 보편화, 대중화, 생활화를 시도하고 있다. 논문의 요지를 게재한다. 〈편집자〉

월암 스님 中 북경대 박사논문 '돈오선 연구' 요약

대승불교에서는 이미 세간을 떠나지 않고 열반을 성취할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특히 돈오선은 '세간 즉 출세간'의 불이중도(不二中道)를 일상생활 가운데서 실현시키는 것으로써 그 종지를 삼고 있다. 즉 행주좌와 어묵동정, 일체처(一切處) 일체시(一切時)에 번뇌와 생사가 본래 공함을 요달하여 번뇌와 생사를 브리와 열반으로 돌려쓰는 돈오선을 제창한 것이다. 혜능은 일상생활 그대로가 선정이며 지혜의 발현이 되는 생활선의 실천, 즉 돈오선의 종지를 돈오돈수(頓悟頓修)라는 수증론으로 표명하였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혜능선의 수증론이 돈오돈수론 뿐이며 돈오돈수는 '무수무증(無修無證)'으로써 닦을 것도 없고 깨달을 것도 없는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다. 그런데 혜능 돈오선이 비록 돈오돈수라는 최상승의 수증이론을 주장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근기론(根機論)의 입장에서 '점수이오(漸修而悟)'를 인정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무수무증'이란 진리의 당체에서 한 말이지, 진리를 수증해야 할 사람의 입장에서 한 말은 아니다.

돈오선은 '적교오종(籍敎悟宗)'의 전통 위에 선교일치 혹은 선교겸수의 수행방법을 억설하고 있음을 의면해선 안된다. 사교입선(捨敎入禪)의 '사교(捨敎)'란 결코 경교(經敎)를 버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교를 배우고 교에 의지하여 선을 깨닫되(依敎悟禪), 언어문자에 얽매이지 말라는 경구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작금에 조사선의 효용을 맹신하여, 경전을 익히지 않고 교학을 요해(了解)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있다면, 이는 자칫 조사선을 무지선(無知禪)으로 빠지게 할 소지가 다분하다.

사교(捨敎)란 교에 의지하여 선 깨닫되 문자에 매이지 말라는 경구

또한 남종 돈오선은 지계(持戒)를 소홀히 하지 않고, 계정혜(戒定慧)의 일체인 삼학등지(三學等持)를 해탈 수증문으로 삼고 있다. 즉 계정혜 삼학 중 어느 한 문(門)이라도 결핍되면 완전한 해탈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돈오선은 깨달음(解)과 실천(行)의 일치 즉 해행상응(解行相應)을 고취한다. 홍주, 임제의 평상무사(平常無事), 임운자재(任運自在)의 선풍은 결코 세간을 회피하고 출세간을 구한다거나 생사를 여의고 열반의 경계를 얻는 가르침이 아니다.

돈오선의 본질은 일상생활에서 돈오해탈을 구가하는데 있다. 즉 견문각지(見聞覺知)의 일념 중에 일념의 공성(空性)을 바로 깨달아 일시에 해방되는 일념해탈(一念解脫)에 그 목적이 있다. 일념해탈은 원시불교로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온 수증방법이지만 중국 돈오선에 이르러서야 일상생활의 일념중에 바로 번뇌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난다는 돈오적 의미의 일념성불사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즉 일념의 중도성(中道性)을 요달하여 '생각생각에 해탈(念念解脫)이요, 생각생각에 성불(念念成佛)'을 실현하는 일념성불이 바로 돈오선의 핵심법문인 것이다. 〈단경〉에서 "앞 생각이 미혹하면 중생(前念迷則衆生)이요, 뒷생각에 깨달으면 부처(後念悟則是佛)"라고 설한 것이 그것이다.

오늘날 선수행자들은 이러한 돈오선의 특성을 잘 살려, 생활 그대로가 수행이요 수행 그대로가 깨달음으로 발현되는 수오일여(修悟一如) 즉, 수행자의 근기에 따라 돈점이 서로 상생(相生)되는 돈점쌍입의 실천으로 선의 보편화, 대중화, 생활화를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것은 현대사회에 있어서 돈오선의 진정한 가치다.

※ 기사 넘쳐 '고승 다시 보기' 쉽니다.

연꽃불자시계





특별사은품 (달마시계 + 수월욱 108염주)

· 남성용, 여성용 각각 : 119,000원

『불자들만을 위한 연꽃 불자시계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고 튼튼한 시계를 원하는 불자들에게 안성 맞춤인 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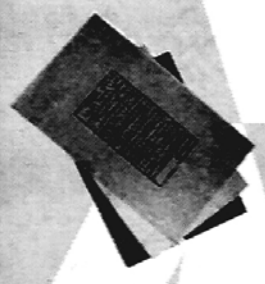
불자용 방석



· 재질 : 면
· 크기 : 약 50cm × 50cm
· 가격 : 20,000원

『법회, 기도하실 때 뿐만아니라 사무실 의자, 자동차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예쁘고 실용적으로 만든 방석입니다.』

겹다포



· 재질 : 면
· 색상 :
황토색 (크기 : 41cm×68cm)
밤 색 (크기 : 43cm×56cm)
회 색 (크기 : 38.5cm×56cm)
· 가격 : 각 6,000원

『전통적인 방법으로 염색하여 색상이 너무나도 곱습니다.』

한방속옷 세트

▽ 여성용
· 소 재 : 면 100% (60수)
· 사이즈 : FREE · 구 성 : 숯, 황토, 쑥
· 3종(숯, 황토, 쑥) 세트 : 19,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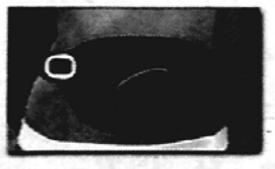


『한방속옷은 옛부터 전해 내려오던 전통적인 염색법에 의한 한방의류로서, 기존의 인체에 해로운 화공약품으로 염색한 의류와는 전혀 다른 숯, 황토, 쑥등 인체에 유익한 100% 천연 한방약재로 염색 처리한 한방내의 입니다.』



△ 남성용
· 소 재 : 면 100% · 사이즈 : 95, 100, 105
· 특 징 : 건강을 위하여 회음부분에 옥가루 부착
· 5종(숯, 황토, 쑥, 도토리, 오배자) 세트 : 45,000원
· 3종(숯, 황토, 쑥) 세트 : 29,000원

옥(玉)건강벨트



· 내용물 : 건강벨트, 은도조절기, 어댑터, 시가잭, 충전기/ 밧데리 (휴대용 구입시)
· 가격 : 가정용 148,000원, 휴대용 248,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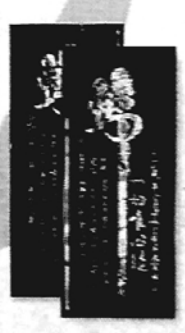
우리말 묘법연화경



보내 주신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인연공덕에 대하는 영원스님의 대정명법화경의 연꽃과 같은 기쁨은 누구나 부처님 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1. 서품 ~ 27. 보현보살권발품까지 총 27장의 CD를 패키지상품으로 구성하여 15%(270,000원-229,500원=40,500원) 할인된 가격으로 드립니다.
· 정상가 : 270,000원 ⇨ 할인가 : 229,500원

자개모자함



『중요 무형문화재 제108호 기능 보유자이신 권해옥 도편수 전통 송방응선생이사전철기로 제작한 것입니다. 제품의 재질은 최고급 흥송에 5년에 걸쳐 나전칠을 한 후 최고급 자개로써 글자를 새겨넣었습니다. 특히 자개는 빛의 강도와 보는 각도에 따라 색깔이 변화되어 낮과 밤에 따라 그 빛이 달리 보이는 묘미가 있습니다.』

· 크기 : 가로 235mm × 세로 560mm × 높이 25mm
· 색상 : 적색, 흑색
· 가격 : 660,000원

Mahamall 불교문화상품전문사이버몰 www.mahamall.co.kr 마하몰 02)732-1520